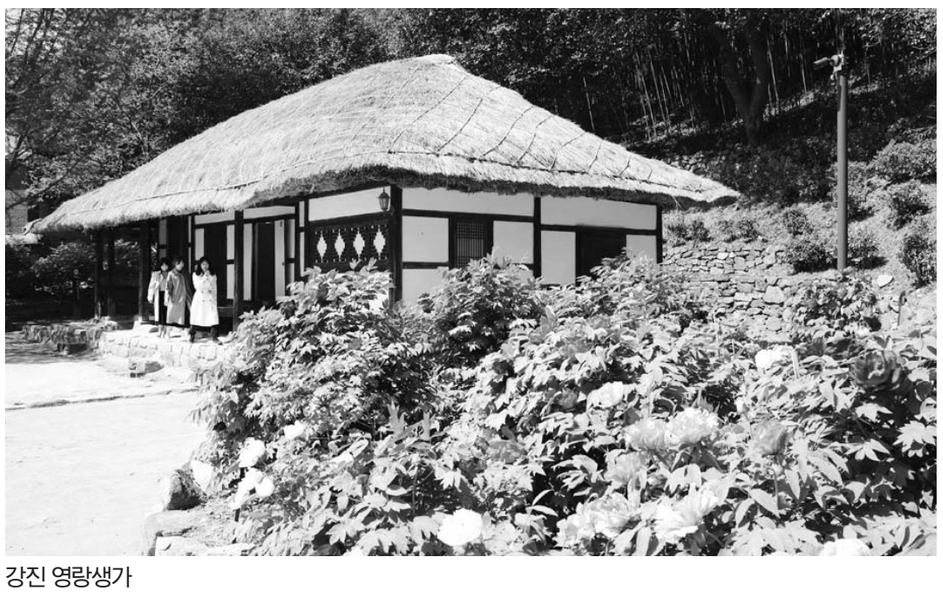
‘남도답사 1번지’ 강진·해남, 관광 활성화 손잡았다

관광산업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강진 영랑생가·해남 우수영 등 자원
수학여행단·문화유적지 탐방단 유치

해남 우수영 명량대첩축제


강진 영랑생가

해남군과 강진군이 손잡고 지역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몰이에 나선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군과 강진군은 지난 29일 해남군청 군수실에서 관광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와 이승옥 강진군수 등 양 군 관계자가 참여했다.

협약식에서 양 군은 문화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학생 수학여행단 공동유치 및 운영,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관광마케팅 홍보 등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해남과 강진이 공동 기획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 등 지자체 연계 공모사업을 공동 추진,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해남군과 강진군은 지난 3월 고산 윤선도와 다산 정약용 등 인물을 중심으로 한 연계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해남과 강진은 해남고천암 철새도래지와 강진만 생태공원, 전라우수영과 전라병영성, 땅끝순례문학관과 영랑생가 등 상호 연계 가능한 지역 특화 자원이 풍부하다. 장거리 남도 여행을 통해 2개 군을 함께 여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양 군은 단체장 참여 아래 진행된 협약 이후 실무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 군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논의와 함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공동개최 등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협약체결은 이웃 군인 강진과 함께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남과 강진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공동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화순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에 긴급지원금

실내체육시설 등에 최대 70만원 지원, 8일까지 신청·접수

화순군은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 기간(3월 23일부터 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이다.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시설에 제한된다.

자진 휴업 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번 긴급지원금의 특징이라고 화순군은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화순군은 지난 3월 23일부터 종교시설,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 378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이다. 5일 이상 자진 휴업한 곳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서는 업소별 화순군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화순군은 시설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중 신천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된 업소, 행정명령 시행(3월 23일) 전부터 휴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발령 기간 중 영업 정지 해제 후 행정명령 준수 업소는 포함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진도군 선정, 2025년까지 690억 투입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로 진도읍 해창지구와 염대지구가 지정 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 지정으로 국비 345억원 등 총 69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정비사업이 추진된다고 진도군은 덧붙였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서 비롯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과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피해를 예방한다. 진도군은 내년까지 실시설계용역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남천 3교에서 해창리(10.5km) 구간과 칠전저수지에서 석교천(8.5km) 구간에 제방·호안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교량을 재가설하는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하천 범람과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사업 설계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함평경찰, 가정의 달 맞아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나서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지난 29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을 찾아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 활동을 펼쳤다. 함평경찰과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계자가 코로나 19 방역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장성군, 황금연휴 기간 방역관리 강화

전담소독반 6개 운영… 관광명소·터미널 등 344곳 집중 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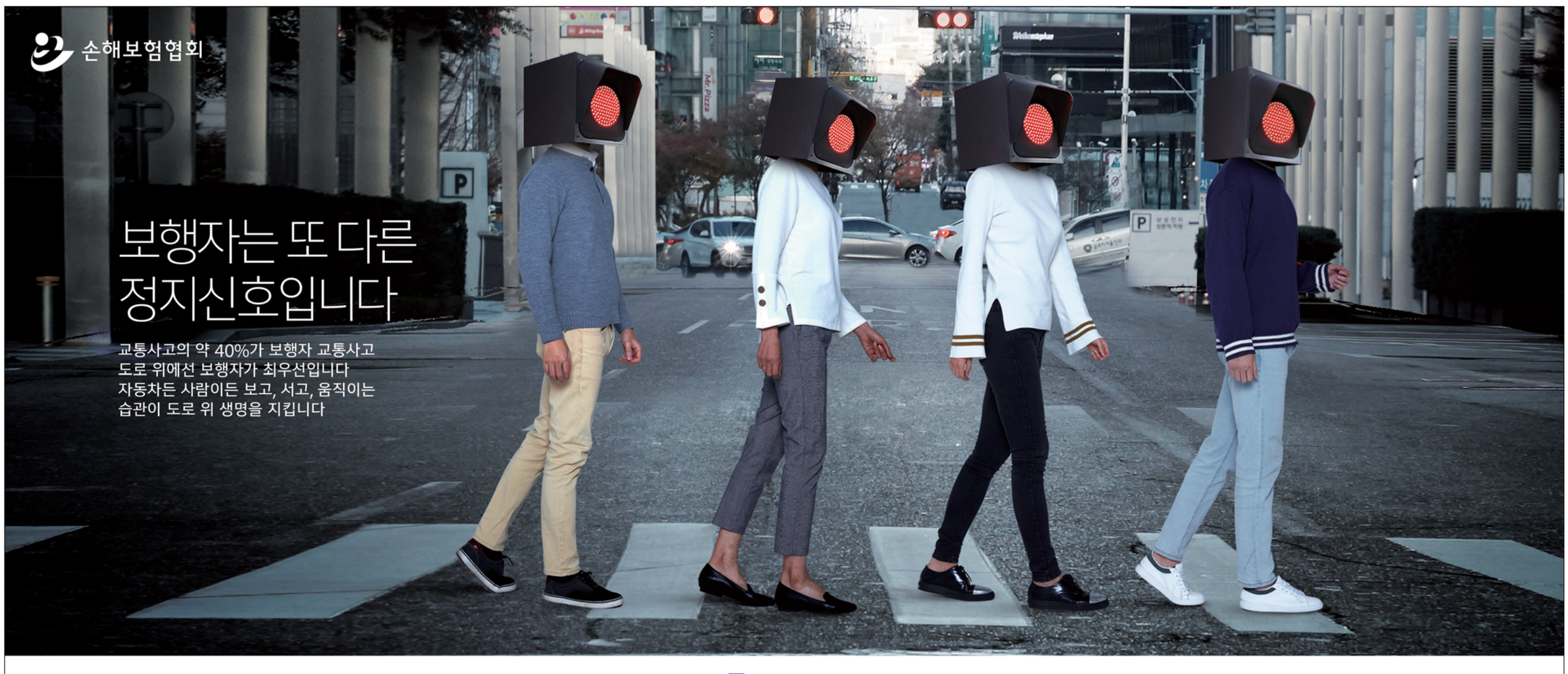
장성군은 5월 황금연휴 기간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장성군은 연휴 기간에 공무원과 소독전문업체 직원으로 구성된 6개 전담소독반을 운영한다.

▲지역 내 관광명소 ▲학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 사업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 344개소를 집중 방역 소독할 계획이다.

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장성호 수변길, 필암서원 등 관광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관광 해설과 함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한다.

다중이용시설과 고위험사업장에는 소독 물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방역을 지원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다가오는 연휴가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통해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 등 개개인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